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본격 추진

도, 농식품부 주관 ‘행복한 농촌마을만들기’ 출전... 이달 말까지 전북 지역에선 참가마을 모집·내달 27일 도 대표 출전 순위 결정

전북도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제9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콘테스트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행복한 농촌마을만들기' 지역 예선전 성격으로 31일까지 5개 분야에 대한 참가마을을 인터넷(www.raise.go.kr/contest) 통해 모집한다. 이달 말일까지 시군 자체평가를 통해 분야별 1개 마을씩을 도에 추천하게 되며, 6월 10일까지 전문평가단을

로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6월 27일 최종 순위결정을 위한 콘테스트를 도청 대강당에서 참가마을의 축제(시례발표, 전시회, 퍼포먼스 등)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순위결정장에서 분야별 1위를 차지한 마을은 전국대회 '행복한 농촌마을만들기'도 대표로 출전해 타 시도 추천마을과 경쟁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전북 대표로 출전한 정읍 정문마을이 전국 1위의 대상을 수

상한 바 있어 도는 금년에도 분야별 대상을 수상하는 마을을 배출해 전국 최초로 마을만들기 콘테스트 2연패를 달성하겠다는 각오이다. 도는 그동안 민선6~7기 도정 핵심 과제인 삼각농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동체 기반,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전국에 알리고 참가마을의 강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또한 농촌만들기 분야는 그동안 선

설 활용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전국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지형 도 농촌활력과장은 "금년 대회를 통해 전북도 생생마을의 우수사례를 전국에 알리고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코로나로 침체됐던 마을공동체가 새롭게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을 빛낸 최우수 부서 ‘으뜸도정상’ 시상

최우수 부서-혁신성장정책과·우수 부서-소방행정과·예산과·보건의료과 선정

전북도는 올 4월 중 업무성과가 탁월한 4개 부서를 대상으로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시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우수 부서에 혁신성장정책과, 우수 부서에 소방행정과, 예산과, 보건의료과가 선정됐다. 혁신성장정책과는 연구개발특구 성

과 종합평가 1위 및 다수의 국가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총 3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소방행정과는 2022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전국 2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예산과는 행정안전부장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10년 연속(2012년~2021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누적 재정 인센티브 60억 원(시·군 포함) 확보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다. /유호상 기자

보건의료과는 의료취약 지역 공공의료 확대 및 의료접근성 향상과 생활의료센터 운영 및 코로나19 취약기관(요양병원) 방역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이달의 으뜸도정상 선정 부서에는 격려금과 함께 최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 가점을 성과로 부여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으뜸도정상은 도정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정 성과를 지속해서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저소득층·복지시설 에너지복지 실현 추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 에너지부서에 23일까지 신청

19억원 투입 예정·노후된 조명기기...LED 조명으로 교체 사업 진행

전북도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후된 조명기기를 고효율기기(LED조명)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3만 8,714개소(저소득층 3만855세대, 복

지시설 5,860개소, 영구임대주택 1,999세대)에 387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12개 시·군, 2,524개소(저소득층 2,285세대, 복지시설 239개소)를 선정해 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체되는 LED조명 제품은 '고효

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획득 제품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내년 사업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 에너지담당 부서에서 각각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량위계층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해당 된다. 윤세영 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충분한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찾아가는 경영 컨설팅 진행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대상...마케팅·금융등 다양한 분야지원

전북도와 전북소상공인 공역지원센터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솔루션' 경영 컨설팅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 컨설팅 분야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마케팅, 경영, 위생 등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해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현장 솔루션 드림카페' 커피트럭을 운영해 5월 20일까지 도내 11개 시군을 순회한다. 하반기는 9월 중에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예비창업자도 가능)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뿐만 아

니라 전북도 소상공인 공역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심층 컨설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업체당 연 2회 ▲위생, ▲금융, ▲세무, ▲노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소상공인 공역지원센터 누리집(www.jbas.or.kr, 1588-0700)을 참고하면 된다. 이정석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밀착형, 현장형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도, 최대2천만원 한도·금리 1.6% 수준 보증

전북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도내 자영업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농업은행,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0억 원 규모의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작년(100억원)에 비해 지원규모를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신용평점 744점 이하에서 신용평점 839점 이하로 확대 시행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조치에 따른 전북도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이하 또는

연소득 45백만 원이하인 업체에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대출금리 중 2%를 초과보전해 최대 3년간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6% 수준이다. 상환방식도 일시상환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 뿐만 아닌 거치상환 방식으로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환에 대한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한편, 특례보증 신청은 전북신보 본점 및 관할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도,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 추진

배출사업장·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오존 대응 행동요령 홍보

전북도가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존 발생 원인 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복적으로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기도·폐 등 호흡기 손상, 눈·코 자극·식물 조직피해, 기후변화 유발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관리가 필요하다. 도는 이번 집중관리 추진 기간 동안 오존 생성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해 오존 발생 완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존 노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오존 경보 안내와 행동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오존 농도는 에어코리아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하며 특히, 고농도 오존 발생 시에는 경보 현황을 휴대전화 문자 전송 및 누리집 게시, 전광판 송출 등으로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실외 활동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오존 대응 6대 국민행동요령을 도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 홍보한다. /유호상 기자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광고 제2022-27호

2022년 새만금지구 매립지 등 관리처분 계획 및 간척농지 임대공고

새만금지구 매립지 등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2년 새만금지구 간척농지 임대차 공고(사료작물 재배)
2. 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3. 06. 30(약 1년)
4. 관리처분 계획별 구획 및 면적

지역	구분	공구	신청구역수	임대료
군산(846ha)	폐해	1-1공구	5	139,580원/ha
		1-2공구	1	무상
	일반	1-1공구	8	139,580원/ha
		1-2공구	6	무상
김제(1,105ha)	폐해	4공구	4	140,100원/ha
		5공구	7	168,120원/ha
		원예단지	3	무상
	일반	1-1공구	1	140,100원/ha
		4공구	7	140,100원/ha
		5공구	3	168,120원/ha
		원예단지	6	무상
		원예단지	6	무상
부안(838ha)	폐해	4공구	2	137,760원/ha
		7-2공구	24	무상
	일반	4공구	1	137,760원/ha
		5공구	5	165,310원/ha
		7-2공구	6	무상
		7-2공구	6	무상

5. 신청자격

공통	○ 본 공고일(2022.05.17.) 이전에 설립되고, 공고일 현재 해당 매립지(군산시/김제시/부안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폐해농업법인	○ 폐해농어업인이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이고 총 50인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폐해농어업인은 새만금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로서 보상여부 확인은 당해 간척사업 피해보상금 수령명부에 등재된 자료만 확인하며, 폐해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의 양도·상속은 배후자만 인정

6. 공고기간 : 2022. 5. 17.(화) ~ 5. 24.(화)(7일간)
7. 신청기간 : 2022. 5. 18.(수) 10:00 ~ 5. 25.(수) 18:00(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3층) 대회의실
8. 관리처분 대상자 선정방법
 - 본 사업지역에 속하는 시·군 지역의 농업법인은 소속된 시·군 대상지 내 여러 구역에 신청 가능하되, 1개 법인이 1개 구역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9. 추첨 일시 및 장소
 - 가. 추첨일시 : 2022. 5. 30.(월) 군산 10:00 ~, 김제 13:30 ~, 부안 16:00 ~
 - 나. 추첨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3층) 대회의실
10. 문의사항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김중현(063-540-5911)
 - 나. 현상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부 권혁희(063-540-5837)
11.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및 지자체(군산, 김제, 부안)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5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